

지역 소식통

정읍 농기센터,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사고는 운전자 고령화로 인한 기계 조작 부주의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는 △경사지, 굴곡지대, 논둑에서 경운기·트랙터 전복 사고 △분쇄기·탈곡기 작동 중 옷, 장갑 끼임사고 등이 있다.

특히 보급이 많이 된 경운기의 경우 주행 중 속도가 느리고 야간 등화 장치(반사판)가 부착되지 않아 뒤따르는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으로는 △사용 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혈령하거나 늘어지는 옷 착용은 피하기 △운행 시 동승자 탑승을 금지 △운주 후 절대로 농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하지 않기 등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사문화제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공개녹화

국내 최장수 인기 예능프로그램으로 일요일 낮을 책임져 오고 있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정읍을 찾는다.

정읍시는 정읍사문화제가 펼쳐지는 오는 29일 오후 1시 한국가요촌 달하 일원(우천시 국민체육센터)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정읍편 공개 녹화가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은 제34회 정읍사문화제의 마지막 날로 시는 문화제를 풍성하게 하고 시민 화합과 문화 향유의 장을 제공하고자 전국노래자랑 유지를 추진했다.

참가 신청은 정읍시민이거나 정읍 소재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심은 오는 27일 오후 1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

공개 녹화 때는 예심을 통과한 15개 팀이 나서 노래실력과 장기를 뽐낸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제15회 부안 곰소젓갈축제 성료

곰소다용도 부지 일원서 8개 분야 40여개 프로그램 구성... 총 7300여명 관광객 방문

제15회 부안 곰소젓갈축제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곰소다용도 부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뽕게 물든 곰소마을로 초대! 젓갈한번 맛보실 가을'이란 주제로 8개 분야 4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치러졌으며 총 7300여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했다.

개막행사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부안군의원, 전북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군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김광욱 축제 추진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개막 퍼포먼스, 불꽃놀이로 진행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곰소젓갈의 김철맛과 우수성을 알리고 군민 화합 한마당, 경연, 일상 속에서도 젓갈을 더욱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젓갈요리 교실, 향토마라톤, 곰소천일염 체험, 스탬프 투어, 곰소에서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군밤 굽기 등 다채로운 경연, 체험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축제장에 담았다.

또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곰소젓갈 합인 정찰 판매, 관광객들에게 교부된 농수산물 교환권은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와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는 군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타, 생활체조, 노래교실, 색소폰 우쿨렐레, 라인댄스 등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신건강우수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고창군, 유관기관 연계 등 아동청소년 '마음생명탐험' 운영 노력 인정받아

고창군이 지난 10일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서 '2023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및 사업' 우수프로그램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사는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지역사회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우수사례를 발굴해 정신건강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신건강 증진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진행했다.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표현 부족, 사회성 저하, 미디어 과몰입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동아리 '마음생명탐험'을 운영했다.

대상자는 고창교육지원청, 고창군 드림스타트, 고창초등학교, 고창중학교,



자유중학교와 연계해 모집했다. 이후 고창읍성, 도예체험장, 문수사, 원드림 덕화체디농원, 동리사네마, 상하농원 등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생태 자원과 자유농업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지역 자원을 연계한 동아리 활동으로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균형을 위한 기회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저소득층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연중 지원

부안군은 무릎 관절증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술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부안군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6건 3,6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부안군 거주 1년 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어르신이다.

지원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양측 200만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간혹 수술 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수술 전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먼저 보건소에 제출한 후, 대상자 여부 결정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 수술을 받아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의회 제344회 임시회 개최

하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 등 13일간 의정활동 시작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23년도 하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은 '위도 여객선 해결 방안 마련 촉구'라

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서 부안군 위도 면민의 생활권 보호 및 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위도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하반기 군정보고를 통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11일 시청서 사랑의 헌혈운동 진행

정읍시는 11일 시청에서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소속 직원들은 헌혈에 참여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시에서는 분기별로 연 4회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혈액수급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시민 누구나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읍헌혈의 공간(구, 시기동주민센터 2층)을 매주 수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단체 헌혈과 개인 헌혈을 포함해 2194명의 시민이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자에게는 혈액형, B형간염, C형간염, 매독검사, 간기능검사 등 7종의 검진 서비스가 제공되며,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헌혈 운동은 소중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으로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며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정읍헌혈의 공간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멸종위기야생생물 '부안종개' 복원 방류

부안군은 2012년부터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안종개 방류행사를 지난 10일 새만금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변산초등학교, (사)남북환경교류연합부안군지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생물다양성연구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어 3,000여 마리를 방류했다.

부안종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안군 변산면 중계 상류 수역 일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깃대종으로, 지난 2008년 부안군으로 지정되었고, 부안군은 부안댐 건설 이후 서식지가 수몰됨에 따라 부안종개의 자연 서식지를 다시 개선하고 복원하여 생



태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방류행사로 멸종위기 동물을 대한 인식을 높이고 멸종위기 동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서식 지역을 복원하는데 많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